

사랑하는

테순이에게

BABYTALE · BABYTALE.KR

숲속 친구들

작은 숲에서 만난 네 친구



A young girl with dark hair and a small flower headband stands in a sunlit forest. She is wearing a pink dress and a white cardigan, with her hands clasped in front of her. The forest features birch trees with white bark and green leaves, and a field of white daisies and yellow flowers. Sunlight filters through the trees, creating a warm, golden glow. In the background, there are more trees and a blue sky with soft clouds.

레순이가 까만 두 눈을
동그랗게 떴어요.

화창한 아침이에요.
작은 숲이 살랑살랑 흔들려요.

레순이 앞에서
풀잎이 부스럭부스럭 흔들려요.
작은 토끼 한 마리가
폴짝 나타났어요.





“안녕, 레순아!
나는 토토야.”

토토가 레순이의 손을 살짝 잡아요.
함께 떡갈나무 쪽으로 가요.

큰 나무 아래 다람쥐 도도가
두리번두리번 둘러봐요.
“도토리를 못 찾겠어.
같이 찾아줄래?”



레순이가 가만히
낙엽을 들춰 보았어요.

도토리 한 알 두 알,
다람쥐 도도가 까르륵 웃어요.



레순이가 토토의 손을 잡고
개울가에 닿았어요.

작은 여우 루루가
물 앞에서 가만히 멈춰 있어요.



레순이가 루루의 손을
꼬옥 잡았어요.

“같이 건너자.”
루루 눈이 반짝 빛났어요.



건너서 댕은 풀밭이
친구들로 가득 찼어요.

레순이의 작은 손이
한가운데에서 살랑살랑 흔들려요.





레순이의 발 앞 풀잎 끝에
작은 별빛이 반짝 빛났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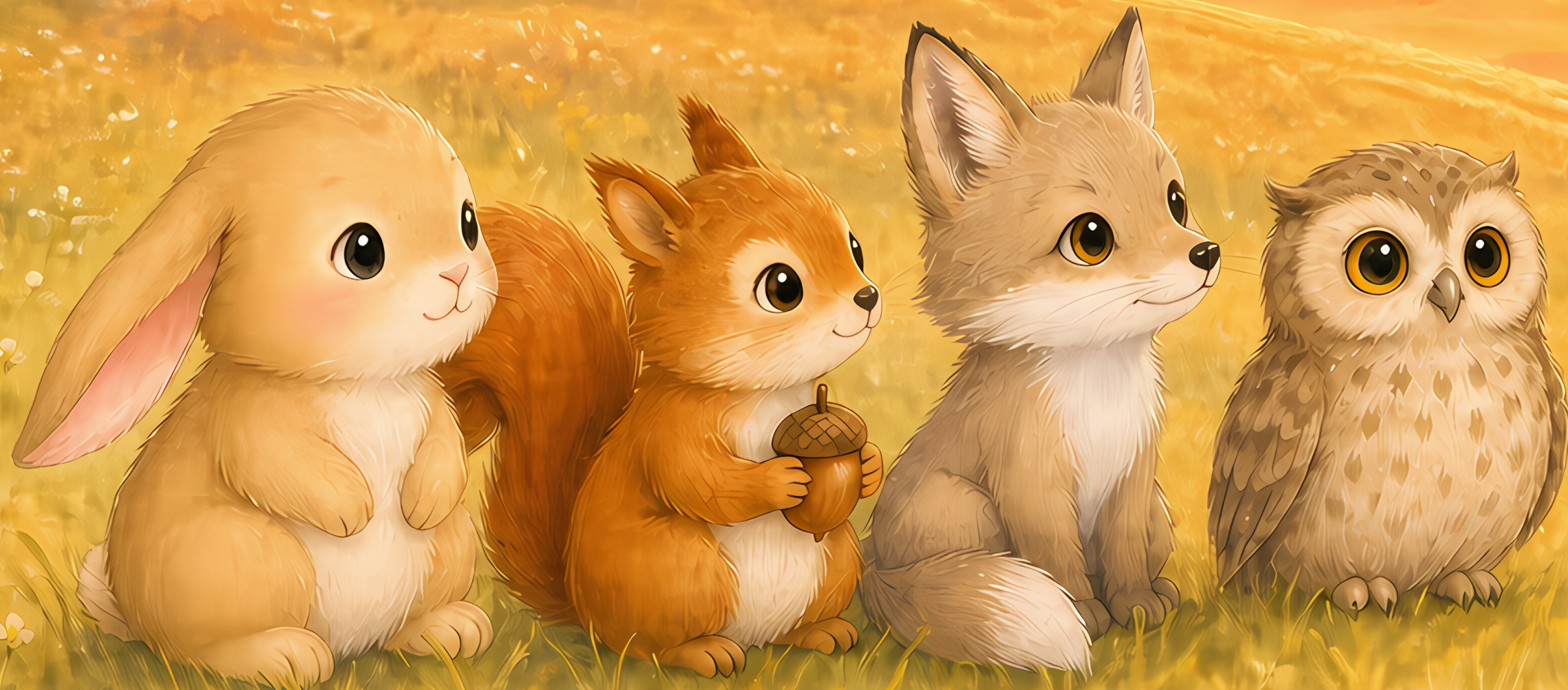
그때 부엉이 위니가
부우우 노래해요.

별빛이 풀밭에 닿고
모두가 동그랗게 모였어요.

도토리 한 알씩, 토토 하나,
도도 하나, 루루 하나, 레순도 하나.



친구들이 동시에
테순이만 바라봐요.
“테순이가 있어서
하나도 안 무서웠어.”



별이 하나둘
자작나무 위로 떠올라요.
“레순아, 내일 또 만나.”
작은 손이 살랑살랑 흔들려요.





테순이가 새근새근 잠들어요.
작은 손에 도토리 한 알이 살며시 안겨 있어요.



이 이야기는
테순이를 위해
단 한 번, 단 한 권만
만들어졌습니다.